

## 현대미술에서 기형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의 해석과 재해석: 마크 퀸(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심상용 서울대 부교수

### 서론

인간의 신체는 미술 표현의 역사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랜 대상들 가운데 하나다. 신체 표현에는 제의와 예술이 미분화되었던 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들이 담겨 왔다. 제의의 시대에는 부족의 염원이 담겼고, 고대미술에선 완전한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지난 세기 이후, 형태적으로 왜곡되거나 다양한 정도로 손상된 신체표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조리한 시대상이나 고통받는 자아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신체표현은 인간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신체, 냉동된 사체, 내장기관과 호르몬, 배설물에까지 확대되면서 익숙한 것이 되었다. 이 논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한 신체 기형이나 변형을 표현의 주 모티브로 삼는 두 현대 작가, 마크 퀸(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표현과 표현을 뒷받침하는 포스트 휴먼 담론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자 하는 시도의 산물이다.

포스트 휴먼 개념은 유전적, 외과적, 기계적인 보완이나 합일을 통해 변형되어, 인간의 신체보다 한층 우월하게 된 '진화된 신체'를 의미한다. 이 진화된 포스트 휴먼의 신체는 사이보그, 유전자 조작이나 나노기술, 신경약리학, 기억향상약물 등, 다방면의 기술적 진화의 결과와 연동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논의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지점은 포스트휴먼 신체 담론과 지난 세기 후반까지의 대체적인 신체담론 사이에는 차이에 관한 것이다. 후자가 부조리한 실존과 어리석은 문명에 대한 단말마적, 감정적 대응이나 고발의 성격이었다면, 전자 곧 포스트 휴먼 담론은 더는 유의미하지 않은 휴머니즘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고찰로서 탈주와 해방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대안적 휴머니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에 의하면, 미술 맥락에서 포스트 휴먼 담론은 생명기술, 유전공학, 컴퓨터기술로 인한 변화의

시대의 인간을 재정의할 새로운 유형의 미술에 관한 것으로, 이 논의에서 다룰 두 신체표현의 지지자로서 자주 원용되고 있기도 하다.

마크 퀴는 1990년대 들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영국의 yba 작가이고, 피치니니는 보다 젊은 세대에 호주 작가이다. 마크 퀴는 장애를 지닌 신체, 정확히 하자면 선전적인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을 식물 크기의 대리석 조각으로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퀴는 신체기형을 전통적인 미(美) 개념을 대체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움으로 규정하고, 선천적인 사지 기형을 지닌 실존 인물인 앨리슨 래퍼의 조각상을 <미래의 모뉴먼트>로서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한다. 피치니니는 인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두 동물 종이 뒤섞인 혼종 생물체들을 만든다. 그가 만든 것들은 괴물이나 심지어 외계인을 방불케 한다. 그것들 중, 스카이웨이일이라는 이름의 지닌 것은 거북이를 닮은 머리에 거대한 고래상어 같은 몸, 그리고 10개의 전구로 밝혀진 매달린 젓가슴을 몸통의 양쪽에 달고 있다. 피치니니는 그가 만든 기괴한 생명체들, 잡종, 변종 생명체들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옹고 그림을 따지기 전에 그것들에 대한 일체의 폭력적인 대응을 내려놓고 따듯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선천적 기형은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윈주의의 진화론적 맥락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의 역진화론적인 혼성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포스트휴먼 담론의 맥락에서 퀴의 기형신체나 피치니니의 생물들의 중간 융합에 의한 괴생물체는 어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기대를 걸만한 탈주의 선이나 전향적인 해방의 지대로서 제기된다. 이는 부조리한 실존과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로 인해 억압되고 고통받는 인간과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의 가능성에 이르는 인식 전반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과 근원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의의 출발과 목표는 모호하지 않다. 두 작가의 기형 신체표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포스트휴먼 신체담론을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과 대조하고, 그 대조를 통해 재조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대미술작품 해석에 사용되는 담론의 출처가 미술사나 미학, 현대 인식담론이나 사회학의 경계를 크게 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의 맥락에 기반하는 해석의 도출이라는 이 논의의 성격이 이미 충분히 전향적인데다, 포스트휴먼 담론이 오늘의 예술창작과 담론 생성의 현장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이니 만큼,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만, 그리고 오로지 성서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의 복음에 깊이 천착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우려스러울지언정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일에 있어, 이 논의가 유의미한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 I. 현대미술과 신체표현 및 담론

### I-1. 포스트휴먼 신체 표현과 담론

이 논의는 인간의 신체표현에 있어, 이 시대의 미술이 보이는 일련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장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현대에 새로이 도래한 신화 가운데 하나다.(장 보드리야르, p.190) 이 몸은 시효를 다한 영혼을 대체하는 탈주와 해방으로서의 몸인 동시에,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뉴미디어(new media)로서의 몸이기도 하다. 몸은 이전에 정신과 영혼이 도맡았던 일들의 대리 수행자이자 그 역사의 성스러운 기록물로 간주되었다.

1960, 70년대의 현대미술은 비정형의 몸, 찢겨지거나 절단되는 등 후천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선천적인-유전적인- 기형의 신체들을 대거 소개했다. 그것들은 두 차례의 대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정신과 전후의 부조리한 실존에 대한 반응이거나 보고였다. 미국의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은 폴크스바겐 자동차 지붕 위에 자신의 손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킴으로써 예수의 책형을 흉내 낸 <Transfixed>을 선보였다.(1974)<sup>1)</sup> 프랑스의 미셸 쥐르니악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혈액으로 반죽해 만든 소시지로 영성체를 시행하기도 했다. 1961년에 이미 자신의 배설물 30그램을 통조림으로 밀봉하고, <작가의 배설물>이라는 제목을 붙여 미술관 안으로 들여왔던 이탈리아 작가 피에로 만조니(P. Manzoni)가 있었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 키키 스미스(Kiki Smith), 영국의 길버트와 조지(Gilbert and George) 등이 구토물, 생리혈 등의 같은 체액이나 분비물을 가지고 이 대열에 합류했다. 터너상 수상자(1986)이자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이기도 했던 길버트와 조지의 퍼포먼스에서는 대소변이 형이상학의 최상위 모티프로 격상되었다. 이 흐름은 1980년대로 이어져, 독일의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는 자신의 정액이 포함된 자전적 연대기를 구성했고, 미국의 안드레 세라노는 소변 통에 담근 십자가 사진(1995)으로 스캔들과 명성을 동시에 얻는데 성공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됐거나 혐오스러운 상태의 신체표현이 더욱 전면으로 부상했다.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로나 폰딕(Rona Pondick), 오를랑(Orlan), 매튜 바니(Matthew Barney) 등이 극적으로 해체된 신체들을 보여주었다.

---

1) 1971년 4월에는 졸업 작품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사물함에 몸을 구겨 넣은 채 5일간 물만 마시며 지내기도 했다.

세기말에 이를수록, 신체표현은 저항이건 반항이건 욕망이건 더 극단적이고 혐오스러운 상태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였다. 몸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영혼의 대리물로서, 실낙원의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을 자처했다. 포스트 휴먼 담론은 전통 철학에 기반을 둔 이성과 지성이 그 명백한 한계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자질과 능력 모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포스트 휴먼 신체는 개념적으로 유전적으로, 외과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형, 진화된 신체, 기계나 각종 보철(prosthesis)로 강화되어 인간 신체보다 우월하게 된 사이보그나 유전자 공학, 나노기술, 신경약리학, 기억향상약물 등에 의해 창조된 진화한 신체 개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에는 없었거나 미미했었을 ‘진화’의 개념이 포스트 휴먼 담론의 중추로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위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휴머니즘을 벗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자처한다는 것이다.(전혜숙, p.)<sup>2)</sup>

미술 장에선 IDEO라는 디자인회사 창업자이자 유명한 아트 딜러이기도한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가 일찍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 기술론과 유전공학,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에 따라 변화된 인간의 사회적, 성적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을 재정의 할 새로운 유형의 미술형태”에 대한 요구였다.(Giancarlo Politi and Helena Kontova, pp.66-68.) 기계적으로 진화된 사이보그건 생물학적, 유전적 기술에 의해 진화된 신체건, 인간 신체의 약점이 크게 보완되거나 극복한 인간과 인간신체를 상상하는 것이 미술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말한 것처럼, 진화된 인간(신체)를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헤일즈에 의하면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적(nonhuman) 존재들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이고, 그로 인한 감정적 반응인 공포와 즐거움을 끌어안는 것이다. 포스트 휴먼 신체는 “어떤 오래된 상자를 열어 거기로부터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얻어내는 들뜬 기분”을 동반한다고 헤일즈는 말한다.

헤일즈는 들뜬 기분으로 생물학적 기술에 의해 세포 수준에서 조정된 포스트 휴먼의 놀라운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정해진 궤도를 따르지 않고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수용하는 존재”,<sup>3)</sup> “셀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는 것도 아닌, 무엇 혹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

2) 전혜숙, 「현대미술 속의 신체변형」,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NRF-2007-361-AL0015).

3) 이것은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가 키잡이의 역할에 필요한 세 개의

“순수 계몽적 주체가 아니라, 혼합물(an amalgam)이자 이질적 구성물들의 집합체”, “그 경계가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물질-정보의 총체” 등이 그것이다.<sup>4)</sup> 헤일즈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포스트휴먼 주체가말로 회복된 낙원과도 같아 보일 지경이다. “이처럼 경계를 가로지르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becoming) 자유로움과 변화가능성을 즐겁게 누릴테니“ 말이다. 이 회복된 낙원을 위해 포스트휴먼 주체(신체)는 이물질 혹은 타자와의 결합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괴물, 퀴어, 비정상 상태로 기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환가능성, 경계의 해체에는 인간과 기계 뿐 아니라, 인간과 짐승도 포함된다.(Elaine L. Graham, p.33)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에서 언급된 3개의 ‘경계 침해(boundary breakdowns)’ 중 하나가 인간과 동물의 경계 침해다.<sup>5)</sup> 해러웨이는 이 침해가 좋은 침해고, 우호적인 침해로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나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인간 신체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기에, 침해해오는 그것에 대해 그다지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한다.

## I-2. 저급한 물질주의에서 무신학까지

이렇게 변형, 왜곡되고 훼손된 신체를 미래적이고 해방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변과 인식은 지난 세기 초 조르주 바타이유(George Bataille)<sup>6)</sup>의 ‘저급한 물질주의(Base materialism)’ 같은 담론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바타이유의 담론에서 예컨대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 같은 사상가의 ‘무신학’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다. 옹프레는 “인간에게 자신과 세상을 지배할 힘을 되돌려 주었고 어떤 형태의 감시도 거부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악마를 은인으로 섬겨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미셸 옹프레, pp.145~146.)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옹프레의 관점은 니체가 한층 성숙시킨 무신론의 연장이기 때문이다.<sup>7)</sup> 니체의

---

강력한 요소들-정보, 통제, 소통-에 의해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을 비예측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이버네틱한 인간-기계는 “민첩하게 잘 해내고 변화에 민감하며, 그 자체가 흐름이면서 그 흐름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atherine Hayles (1999), p.8, p.104.

4) Judith Halberstam and Ira Livingston (eds.), p.10.

5) 나머지 두 개의 침해는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물리적인 것과 비 물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D. Haraway (1985), p. 154.

6) 조르주 바타이유는 1920년대에 활약한 초현실주의 이론가이다. 당시에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앙드레 브루통이 우세하였고 형이하학으로 천대받았으나 후기구조주의에 이르러 재조명되면서 미셸 푸코가 서문을 쓰고 전집을 재 발행하기에 이른다.

7) 니체 이전에는 성직자로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설교했던 프랑스의 유물론자 장 멜리에(Jean Meslier.1664~1729)와 유물론의 성서로 불리는 『자연의 체계』를 써서 기독교의 신비성을 까발렸던 폴 앙리 돌바크(Paul Henri Thyry

‘디오니소스적인 것’, 곧 정통파나 어른의 체계에 대한 파괴의 충동에서 바타이유를 거쳐 들뢰즈와 가타리의 인식에 이르는 데까지, 그리고 다시 하버드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미술사학과 교수였던 이브 알랭 부아(Yve-Alain Bois)와 컬럼비아 대학의 미술사학과 교수인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의 비평담론에 스며드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들의 비평에서 ‘규정 가능하지 않은’, ‘경계설정이 불가능한’, ‘끊임없이 연기되는’, ‘이상아릇하고 정의할 수 없는’ 등의 용어로 치환되어, 그들이 현대미술의 동향과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열했던 4가지의 특성 곧 수평성(horizontality), 저급한 유물론(Base materialism), 펄스(Pulse), 엔트로피(Entropy)에 각각 할당된다.(정은영, p.239) 여기서 ‘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바타이유의 철학에서 온 것이다.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의 하락(수평성), 유혹적인 낭비이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유치한 것의 호소(저급한 유물론), 모더니즘의 순수 시각성의 탈신체적 자기 완결성에 구멍 내기(펄스),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저하(엔트로피).(이브 알랭 부아, 로잘린 크라우스, 2013)

## II. 기형과 동물 되기

### II-1. 마크 퀴의 기형 신체, 악(惡)과 고통의 문제

#### 미래의 모뉴먼트(?)

마크 퀴는 선전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을 실물 크기의 대리석 조각으로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대영 박물관에서 들었던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 그가 기형 신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신체 일부가 떨어져나간 것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각상에 감탄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는 측은한 생각이 들거나 시선을 돌려 외면할 것이다. 이로부터 퀴는 아름다운 신체는 유동적인 개념이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야가 매우 편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Marc Quinn, 2006) 실제 장애인의 불완전한 신체에

---

D'Holbach.1723~1789)가 있었다. 그리고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것이다" 등으로 신을 해체해, 이후 K.마르크스와 F.엔겔스로 계승되었던 루트비히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1804~1872)도 있었다. 하지만, 단연 니체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그가 가치의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신을 죽였기에 무신론을 궁극적 목표로 여길 이유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대해 보이는 태도로 보건대, 미(美) 의식은 편견의 산물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미술관의 안과 밖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미술관에 전시된,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고대의 인체조각상이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미술관 안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이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학이 운명이 아니며, 장애가 오히려 생물학적 차원 너머의 영웅적인 인간의 조건이라는 생각으로, 퀴는 '온전한 것과 잘못된 것'(whole or fragmented)의 경계를 넘어, 불완전한 몸, 생물학적으로 결핍된 몸, 비정형의 몸에 다가섰다. 생물학이 운명이 아니며, 장애야말로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웅적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생물학적 운명을 정복했고, 그래서 축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Marc Quinn, 2006)

퀴는 선천적 장애를 지닌 실제 인물의 불완전한 신체를 통해 아름다움과 추함, 숭고와 혐오 사이의 편견을 시각화함으로써, “인간이 상정한 완전함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불가능함”을 상기시키고자 했다.(정은영, p.250.)<sup>8)</sup> 비정형성을 통해 정형화된 인식의 해체를 꾀한다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또 하나의 시각적 각주인 셈이다. 분명한 비교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리석 조각으로 상(像)을 만들었다.

퀴의 이 인물 연작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임신한 엘리슨 래퍼>를 들 수 있다. <임신한 엘리슨 래퍼>는 퀴의 이 인물 연작의 두 미덕을 잘 요약해 보여준다. 첫째는 극심한 사지기형을 지닌 래퍼의 신체가 사회가 강요하는 편협한 미 개념을 넘어, 전통적 기준 밖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형 신체를 지닌 인물이 과거의 군주나 전쟁영웅과는 다른 미래의 영웅 상이라는 것이다. 외부 세계를 정복한 장군의 서사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건을 극복한 한 개인의 소사가 진정한 미래의 기념비로서, 트리팔가 광장에 전시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기형신체를 미래 영웅의 근거로 삼는 이런 인식은 전통적인 미(美) 개념의 해체 및 재구성이라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연장이다.

###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악(惡)과 고통의 문제

하지만, 퀴 자신도 언급했듯, 예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그가 조각으로 재현하고 미래의 모뉴먼트로 칭송하는, 선천성

---

8) 정은영 「현대조각의 파편화된 형상과 부분 대상에 관한 연구: 마크 퀴 <완전한 대리석상>(1999-2001)해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26 No. 2012, p.250.

Marc Quinn, quoted in Richard Rogers, ed. Marc Quinn Fourth Plinth (Steidl, 2006), <http://marcquinn.com/exhibitions/solo-exhibitions/the-complete-marbles1>

기형을 지닌 사람들 자체이자 그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만 했던 범죄의 결과였다.

퀸이 미래의 기념비로 간주했던 극심한 사지 기형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1957년 FDA 승인으로 콘테르칸(Conterg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성분의 부작용의 산물이었다.<sup>9)</sup> 탈리도마이드는 진정제, 수면제,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1953년 독일계 제약회사 그루넨탈(Grunenthal)<sup>10)</sup>에서 개발된 화학적 화합물로, ‘모유만큼 안전하다’는 광고문구와 함께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으로 회자되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형태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판되었다.<sup>11)</sup> 시판 후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콘테르칸을 복용한 임산부에게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 곧 12,000명 이상의 콘테르칸 키즈(Contergan Kids), 또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Thalidomaid Baby)<sup>12)</sup>들이 태어났다. 임신 초기, 주로 아기들의 팔다리가 생성되는 임신 5주에서 8주 사이의 탈리도마이드의 복용이 태아 내의 중요한 세포들에 영향을 미쳐, 사지가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해표지증(바다표범손발증)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지기형이 아닌 경우, 심장 같은 내부 장기 기형, 뇌 손상, 시력 또는 청력 상실, 자폐증, 뇌전증(간질) 등이 나타났고, 극심한 신체기형에 더해 생존률도 매우 낮았다.<sup>13)</sup>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는데, 미국의 FDA 약물 심사위원이었던 프랜시스 켈시(Frances Oldham Kelsey)가 제조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자체 시험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의 불충분을 이유로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덕에 미국은

---

9) 1958년 일본에서는 ‘이소민’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퀸이 이 연작으로 만든 조각상의 모델들이 모두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 독일 그루넨탈은 지난해 매출 1조5000억 원을 기록한 세계 50대 제약회사의 하나로 신규 복합기전의 아편계 진통제인 ‘팔렉시아’를 미국 ‘존슨 앤 존슨’과 공동으로 개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등 진통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다.

11) 탈리도마이드는 최면 효과는 약했지만 독성이 적어서, 위장약으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었다.

12) 콧구멍이나 장이 기형이거나 항문이 없거나 팔과 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

13) 제약사 그루넨탈은 시판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1962년 5월 ‘콘테르칸’의 출하를 정지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제품 회수와 판매정지 조치를 취했다. 1963년 6월 그루넨탈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제소되었지만, 오랫동안 해결이 미뤄지다가, 1974년 10월에야 국가와 제약회사가 배상금을 지불했고, 그 밖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었다. 정부도 유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약품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변명이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sup>14)</sup> 2010년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약사 그르넨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고소장에는 제약회사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기되었다.<sup>15)</sup> 첼시 같은 심사위원이 영국이나 독일에 있었다면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가 고통스러운 운명을 짊어진 채 태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극심한 선천적 사지기형 신체에 대한 권의 인식은 그 기형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을 태어나게 만든, 범죄적인 배경과는 사뭇 분리된 듯 보인다. 하지만 노엄 촘스키(Noam Chomsky)가 밝히듯, 그러한 범죄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체계로 인해, 그가 조각으로 재현한 원본으로서 기형신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악(惡)은 이번에는 빅 파마(Big Parma) 체계로 알려진, 정부들에 의해 ‘엄청난 보호’를 받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독점적 권리’를 둘러싼 공공연한 결탁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었다.(심상용, pp.23-39) 사이먼 켄킨스(Simon Jenkins)<sup>16)</sup>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약이 갖는 권력은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본과 산업의 체계로부터 나온다. 거짓 ‘질병 창조’와 위협적인 경고가 마케팅의 차원에서 난무한다. 오늘날에 글로벌 제약회사들 발표하는 임상연구 결과, 신뢰받는 의사의 판단, 보건당국에 의한 의학적 가이드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마샤 에인절(Marcia Angell))<sup>17)</sup>

12,000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은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고, 양심선언자를 협박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도록 정부기관과 결탁한 제약회사에 의해 제대로 된 팔과 다리를 잃은 채 세상에 나왔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잠8:13) 이 비극은 연구와 임상에서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작용했다면, 누군가가 수억 달러의 매출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연구에 참여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을 했다면, 정부기관이 조금만 덜 부패했다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애굽의 산파들처럼 행동했다면,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14) ‘약물의 부작용사태-탈리도마이드사건’, 2019.10.08., 서유빈, 김광태 기자,  
<https://cafe.naver.com/emrxxx/5>

15) 원고 측 변호사는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리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16) 영국 <Evening Standard>와 <The Times>의 편집장이었다.

17) <http://blog.daum.net/ssaaspi/6667483>

않다. 이집트의 산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다.(출1:17) 이 애굽의 산파들을 두고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야 할 도덕적 위업이요 인격의 힘”이라고 말한다.(싱클레어 퍼거슨, p.172)

선천적 사지기형에 대한 쿤의 인식에서 짚어야 할 또 한 가지는 기형아의 출산에서 장애를 지닌 채 사는 삶의 매순간에까지, 단장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형아 출산으로 인해 산모와 가족이 받는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도다. 산모는 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지는 절망으로 무너진다. 무력감, 좌절감, 열등감이 뒤섞인 채, ‘모성 상처’(Mother’s Trauma)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최소영, 이미라, p.23.) 격한 슬픔, 불안, 비판, 죄의식, 회피 등의 감정상태에 잠식당한다. 한 뇌성마비 아이의 부모는 재진단 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끊임없이 슬픔을 갖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항상 그럴 것이다.” 이 슬픔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화된 슬픔(chronic sorrow)’이다. 그렇게 태어나 현재 5,60대인 콘테르간 키즈들의 희생과 고통은 현재도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고통은 그들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탈레도마이드 약물 피해자들은 기형아 출산, 신체 일부의 부재, 수명단축 등의 책임을 이유로 독일 그루넨탈 제약회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2013년 11월 20일 스페인 법원은 그루넨탈이 탈리도마이드 피해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당 수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up>18)</sup>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위기는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한 기형아 출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의 기형아 발생률은 꽤 높은 편으로, 신생아 100명에 4명이 심장기형, 정신박약아, 무뇌아, 신장 이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상 등 크고 작은 선천적 기형을 동반한 채 태어난다.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임신기간 중 복용하는 약물이나 교란된 생태계, 오염된 먹거리로 인한 유전자적 요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재난과 그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미적으로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는다. 예술은 재난상황을 ‘순수한 형태’의 스펙터클로 재현해, 관객으로 파괴와 폭력에 대한, 무심(dispassionate)하고 중립적인-미학적인- 조망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Susan Sontag,

18) 원고 측 변호사는 "탈레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레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p.213.) 이 무심함의 태도는 칸트의 ‘미학적 무관심’이나 ‘관조’ 개념에서 온 것이다.(임마누엘 칸트) 하지만, 지구 종말과 재난이 일상의 일부로 침투되고, 그로 인한 고통의 신음이 날로 배증되는 오늘날, 고통은 더는 무심한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이윤중, p.70) 그러한 조작적이고 억지스러운 분리의 인식 안에서 천연덕스럽게 외면되는 바로 그 고통의 문제에, 비록 그것이 소수나 한 사람의 것일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성서의 하나님이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끔직한 일이 벌어지는지, 참담한 고통과 절망, 영적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수천만 명의 삶이 어떤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아픔, 배고픔, 굶주림, 절망적인 가난, 고통스러운 질병, 고문, 노예제도, 강간, 학대...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곤경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게리 하우스, p.34)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차단된 안락하고 포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게리 하우스, p.19.)

## II-2.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 동물 되기

2005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MASS MoCA)에서 개막된 전시 《동물 되기(Becoming Animal)》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절, 곧 인간과 동물의 삶을 분리시키는 ‘얇은 막(thin membrane)’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양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이 공감해야 할 “동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Christoph Cox, p.24.) 5개국 12명의 작가들이 진화론, 생명공학과 유전자 이식과 관련한 작품들을 출품하여 포스트휴먼 미술의 세계를 열었다.

《동물 되기(Becoming Animal)》전에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호주 작가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The Young Family>(2002-2003)이라는 작품이었다. 인간과 포유류, 소와 영장류의 종의 특성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괴 생물, 인간의 특성을 지닌 탓에 더욱 끔찍스러운 변종의 모습을 한 조각이었다. 관람자들은 신화 속의 짐승이나 외계인 운운했지만, 고치처럼 보이는 가죽 반침대 위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 종의 분리를 당연시하는 인간의 인식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었다.(Kathy High)

피치니니의 생물체들은 논쟁을 야기했다. 실리콘과 유리섬유, 여우털로 만든 <bottom feeder>(2009)<sup>19)</sup> 같은 작품들은 그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에 충분하다. 2013년 5월, 피치니니의 또 다른 돌연변이 생물체, 거북이 같은 머리에 거대한 고래상어 같은 몸통, 그 몸통에 달린 각각 전구로 밝혀진 10개의 늘어진 젓기슴을 가진 <Sky whale> 이 열기구화 되어 호주 캔버라 상공에 띄어졌다. 하지만, <Sky whale> 의 유전적 잡종성과 호주를 대표한다는 개념으로 큰 반발이 야기되었다.<sup>20)</sup> 비평가들은 그것을 공중에 띄우는 것이 35만 불의 비용을 써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 했다.<sup>21)</sup> 시민들은 ‘스카이웨일’의 몸통 양쪽에서 늘어진 열 개의 거대한 유방 때문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정계도 불쾌해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전위미술에 무지하다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스카이 웨일은 결국 공중으로 떠올랐다.<sup>22)</sup> 이후로도 이 생물체는 일본, 아일랜드, 브라질의 상공에서도 비행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피치니니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sup>23)</sup>

앞서 언급했던 《동물 되기》 전의 제목에 등장하는 ‘becoming(되기)’은 분리된 유사한 종들 간의 친족관계를 환기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질 들뢰즈(Delleuze)와 펠릭스 가타 리(Guattari)의 저서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1980)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ecoming’의 의미가 일시적인 반항이나 고발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종 간 분리를 초월해 새로운 융합으로 나아가는, 이전의 신체 담론에선 보이지 않았던 탈주와 해방으로서의 의미가 부가되었다는 사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의 10고원에서 동물 되기의 모든 의미가 함축 된 사례로서 영화 <윌라드(Willard)> (1972)를 든다. 여기서 주인공 윌라드는 벤이라는 쥐와 함께, 힘으로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실업가 마틴을 살해한다. 결국 윌라드의 ‘쥐 되기’는 벤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산물인 것이다. 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19) bottom feeder: 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생물

20) 스카이웨일은 호주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공중에 띄워졌다.

21) Clarissa Sebag-Montefiore, The Skywhale Returns to Australia’s Skies, and Its Creator Braces for Impact, Oct. 17, 2018.

<https://www.nytimes.com/2018/10/17/world/australia/skywhale-patricia-piccinini-yarra-valley.html>

22) 수도권 의 야당 지도자인 제러미 헨슨(Jeremy Hanson)은 그것에서 "당혹스러운 치기"를 보았을 뿐이며, 지역의 수장이었던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는 피치니니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23) 브라질 문화센터(Centro Cultural Banco do Brasil)에서의 전시 이후, ‘Art Newspaper’는 그녀를 2016년 세계 방문객 수 1위의 현대 예술가로 선정했다.

신체와 쥐의 신체, 사람의 동작과 쥐의 동작..., 양자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분포의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둘을 섞어서 무언가 다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이수경, p.420) 즉, 양자가 분리되었을 때보다 더 나은, 어떤 해방적인 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치니니는 자신이 창조한 돌연변이 생물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감성적인 호소를 곁들인다.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해 이미 존재하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더욱 충격적인 돌연변이 생물체들에 대해 저야 할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Rachel Kent) 우리의 현대적 삶을 허락한 과학기술의 피조물인 만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듯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Dee Jefferson, 2018) 작가는 "왜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묻지만, 그보다 앞서 질문되어야 할 것은 과학기술의 과잉이나 오류로 인한 생태학적 수탈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리가 지금처럼 기술에 지나치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한, 결코 해결될 기미가 없는 피조세계의 비극과 비참성일 것이다. 예컨대 전술핵이나 핵 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방사성 물질은 1만 여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는 비교조차 안 될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모든 방사선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염색체를 파괴하거나 생식기관 내 유전자를 파괴해 돌연변이로 만들 수 있다. 그로 인해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기형이 야기될 수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외부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방사성 원소가 태아 내의 태반을 가로지르며, 심장의 격막이나 뇌의 우반구, 또는 왼 팔을 형성하는 특정세포를 죽이는 등, 온전히 기능하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진 정상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헬렌 칼디코트, p.66)<sup>24)</sup> 그럼에도 방사능 물질과 태아 기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연관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진실이 은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1979.3.28.)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반면,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스트레스와 관련시키는 연구들은 지나치게 많아졌다. 또한 은폐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희생자와 피해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연구를 위한 자금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헬렌 칼디코트, pp.104-105) 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진실은 충격적이다. 1997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핵실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발표와는 달리 21만 2000명의 미국인이

---

24) 일례로 플루토늄은 그것을 발견한 글렌 시보그(Glen Seaborg) 말했듯,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사람이 100만분의 1 그램 이하만 흡입해도 폐암이 유발될 정도다.(헬렌 칼디코트, pp.90-91)

갑상선암에 이미 걸렸거나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도 매우 축소된 것으로, 핵실험에서 흘러나온 스트론튬 90과 세슘137,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원소들로 인해 유발되었을 암의 유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헬렌 칼디코트, p.106)

###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경계의 해체, 식별불가능성에 기반하는 새로운 배치를 통해, 월라드의 쥐-되기, 그리고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꼬마 한스의 말-되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물 되기는 인간의 한계로부터의 탈주에 대한 기대요 해방의 일환이다. 들뢰즈의 표현을 자면, "흰 벽을 뚫고 검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경직된 선분을 벗어나기, 습관이 된 배치를 바꾸기, 그리하여 탈영역화하기이다.“(고미숙 외, p.337)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운명이 이미 예고된 탈주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을 유사종으로 전제하고 그 친족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두는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에 내재하는 파괴와 충동의 에너지 곧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니체의 주목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자신에 잠재해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곧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숙성되어 온 것으로, 푸코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은 “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던 것이다.(오스 기니스, p.58)

이윽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분을 탈영토화해 식별불가능성으로 대체하기까지 이른 동물 되기의 담론과 이 주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사이에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차이가 존재한다. 저급한 것, 속된 것, 외설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으로의 탈주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바티아유의 저급한 유물론이나 엄지발가락의 철학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까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의 기획전 《동물 되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경직된 중간 경계를 허물고, 식별불가능성의 영토로 탈주, 귀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 간의 구분은 영적 차원과 생물학적 차원 모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으로, 완화될 수 없으며 완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성서는 밝힌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2:20~21) 인간이 짐승에 가까워지고 결국 같아지는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몽매무지, 혼계를 싫어하는 것, 총명이 떠나감 등이다.<sup>25)</sup>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될 때 인간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인간 해방의 길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허락된다. 그 밖의 다른 해방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sup>25)</sup> 인생을 짓누르는 억압의 뿌리를 넘어서는 문제는 존재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포스트 휴먼 담론은 그 대상이 기계건 동물이건, 새로운 중간 융합을 수명을 다 한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해방의 가능성으로 논하지만, 자크 엘뤼(Jacques Ellul)에게 그 가능성은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하다.(Jacques Ellul, 1989, p.82.) 동물 되기는 바타이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탈모던, 탈계몽의 해방을 따르는 것으로서, 여기서 구원의 가능성은 ‘더 깊은 아래’로부터 도래하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이 구원은 여전히 위기에 처한 인간이 주체가 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일 뿐이다. 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구원은 오로지 ‘위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 담론의 그것과 극명하게 상반된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쯤 하시고 인간이 반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Jacques Ellul, 1972, p.192)

여호와와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민 12:8; 신 4:12, 15-16), 여호와와 형상-형상대로 지으심-이 있는 곳이 곧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아름다움의 원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죄로 물든 세상의 재현에 안주하는 대신, 그 형상을 사모하고 회복에 관여함으로써 더 높은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천에 있어 회복되어야 할 예술의 새로운 정의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피조세계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지만, 현재는 피조세계 전체가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절망상태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 피치니니는 문명이 저지른 오류의 산물들을 포용할 것을 촉구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더 악한 오류를 범하는 상태로 만드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25)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1:),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 12: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잠 30:2) 등.

26) “11.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장 11-12)

인해 파괴된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설계한 문명의 오류와 그로 인해 치루어야 할 엄청난 대가에 대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존재이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라르킨(Larkin)이 말했듯,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다른 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른 이’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자연계의 피조물이기도 하다.<sup>27)</sup> 하지만 인간 본연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에, 포스트 휴먼 담론 지평 위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만다. 동물이나 기계 같은 비인간 종과의 합일을 잠정적인 해방구로 삼는 담론은, 그것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의 절박한 위기상태를 대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다가 짐승의 그것으로 향하는 것으로 인한 위기일 것이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

## 결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미 1960년대에 인간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고깃덩어리화된 인체를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 기형과 돌연변이, 총상을 입거나 고문당한 신체, 학대당한 신체가 줄을 이었다. 훼손되거나 왜곡된 신체표현은 지난 세기 후반부의 어느 지점까지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원숭이 빨간 피터의 고백이 그렇듯, 부조리한 실존에서 오는 막막함, 절망적 상황, 혼돈과 허무의 반응이라는 성격이 우세했다. 하지만 분위기의 반전이 있었다. 퀴는 기형 신체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대체하는 미래의 기념비로 선언했고, 피치니니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유전자적 교합의 산물인 변종 생물체를 미래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선천적 사지기형을 지닌 퀴의 인물과 피치니니의 기괴한 돌연변이 생물은 지구 종말과 재앙을 일상으로 부지런히 침투시키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잠재적 파괴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칸트 미학의 무심함으로 고통의 문제에 무감각하다는 점에서도 이 두 작가의 세계는 유사성을 지닌다. 이는 이러한 신체표현의 인식적 배경으로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의는 이러한 신체표현과 그것을 지지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을 기독교 세계관 과신앙과 대조하고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악(惡)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세 논점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먼저는 퀴가 그 미학적 잠재성에 주목했던 사지

27) Larkin, *Silent Presence*, pp.7~8.

기형이 실은 이익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제약회사와 글로벌 제약 산업계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며, 그럼에도 제약 산업계의 악행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글로벌 산업의 탐욕의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건강하게 태어났을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의 진실을 그들을 미래의 영웅으로 명명하는, 시효가 다한 미적 자율성의 원리 같은 인식담론으로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퀴의 선천적인 사지기형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 이는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들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인간과 피조세계에 드리워진 고통의 무게야말로 그것에서 미래와 해방 운운하는 포스트 담론에 미혹되어 간과해선 안 될, 이 시대와 문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나 자연계가 고통에 신음할 때 침묵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그때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마르틴 니컬러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sup>28)</sup>

우리는 또한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맥락에서 보고자 했다. 사람들에게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 아름다움의 원형이기도 하다. 그 손상된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구원과 바타이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미셸 옹프레의 무신학과 들뢰즈와 가타리에 이르는 일련의 포스트담론이 해방으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는 전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퀴의 기형신체나 피치니니의 변종 돌연변이 생물체들을 포함해 온갖 유형의 훼손된 신체 표현이 한편으론 탈주와 해방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극적인 구경거리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는 점이다. 그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인문적인 탐구의 깊이를 반기지 않는 대중잡지들이 좋아하는 것들" 과 일치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것들은 창조의 본질인 생명이나 진실 탐구의 노력과는 무관한, 모호성을 자유와 해방의 추구하고 뒤섞어 착각하게 하는 효과로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관측형식의 일환을 환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훼손되고 해체된 신체표현이 인식을 각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잠들게 하는데 관여할 수도 있다. 시대와 문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순기능에 도달하기

---

28) 에릭 메택시스,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서울: 포이에마, 2011) p.422.

800명의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이 나치에 체포될 당시(1937), 그들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컬러가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이다.

이전에, 상실감과 혐오감마저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과도한 감각적 쾌로 휘발되고 말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질문해야 하며, 그 답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은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담론들이 노도처럼 밀려들어, 우리의 정신에 은연중에 허무와 혼미를 수혈하고 시야를 흐리는 시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죄로 물든 현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예술은 그러한 세계 내의 삶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더 높은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활동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출판, 2004,  
게리 하우젠, 『정의를 위한 용기』, 이지혜 옮김, 서울: Ivp, 2011.  
미셸 옹프레, 『무신학의 탄생』, 강주현 옮김, 모티브북, 2006.  
싱클레어 퍼거슨, 『헛된 것에 속지 마라』, 이용벽 옮김, 서울: 규장, 2015.  
에릭 베타시스,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1.  
이브 알랭 부아, 로잘린 크라우스,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정연심 외 옮김, 미진사, 2013.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9.  
자크 엘릴,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두란노, 1987,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1.  
헬렌 칼디코트, 『원자력은 아니다』, 이영수 옮김, 서울: 양문, 2007.

- 심상용,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약품 연작의 비평적 읽기: 약을 믿는 것처럼 예술을 믿어야 하는가?」,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10, 2019.  
이수경,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연구」, 『철학논총』 72, 2013,  
이윤중, 「할리우드 지구 종말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인터스텔라>의 디스토피아적 시공간성」, 『인문과학』 제 57집, 2015.  
전혜숙, 「현대미술 속의 신체변형」, 『현대미술사연구』, Vol.31, 2012, 2007,  
정은영 「현대조각의 파편화된 형상과 부분대상에 관한 연구: 마크 퀸 <완전한 대리석상>(1999-2001)해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26 No, 2012,  
최소영, 이미라, 「기형아 출산 산모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권 제1호.

- Jacques Ellul, *What I believe*, Geoffrey W. Bromiley(trans.), 1989,  
Jacques Ellul,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Geoffrey W. Bromiley(trans.), Eerdmans, 1972,

Christoph Cox, *"Of Human, Animals, and Monsters"*, in Nato Thompson(ed.), *Becoming Animal, Contemporary Art in the Animal Kingdom*, Exhibition Catalogue of MASS MoCA, May 2005–March 2006, MASS MoCA Publication and MIT Press, 2005,

Elaine L. Graham, *Representations of Post/Human, Monsters, Aliens and others in Popula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Giancarlo Politi and Helena Kontova, *"Post Human, Jeffrey Deitch's Brave New Art"*(interview)", *Flash Art*, No. 167, 1992(November/December),

Susan Sontag, *"The Imagination of Disaster"* in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Picador, 1961,

Rachel Kent, *"Nature is as Nature does: Patricia Piccinini's Super-natural Creations"*, Patricia Piccinini, *Nature's Little Helpers*, Exhibition Catalogue of Robert Miller Gallery, New York, 22 October–30 November,

Kathy High, *Embracing Animal*, 2004, Glass tubes, DVD, four mini LCD monitors, live rats, steel mesh, plywood and Lexan cage

Marc Quinn, *Recent Sculptures Catalogue*, Groninger Museum, 2006

<http://marcquinn.com/artworks/single/kiss>

Dee Jefferson, *Patricia Piccinini's hyperrealist sculptures are a call for radical empathy and change*,

<https://www.abc.net.au/news/2018-04-12/patricia-piccini-curious-affection-at-qagoma/9638564>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현대미술에서 기형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의 해석과 재해석 - 마크 퀸(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발표자	심상용
		논찬자 (소속)	전성규 (목포대 미술학과)

미술사를 통해 볼 때 신체는 미술가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미적으로 승화된 완벽한 신체에서, 신체 본연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서구의 사상을 지배하였던 이분법적 논리의 붕괴와 더불어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오늘날 극단적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신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인간형이 아닌 괴기한 타자라는 측면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심상용교수는 현대 작가 마크 퀸(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를 중심으로, 심한 신체 기형이나 변형을 보여주는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하는 포스트 휴먼 담론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퀸은 기형 신체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대체하는 미래의 기념비로 선언했고, 피치니니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유전자적 교합의 산물인 변종 생물체를 미래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심교수는 이 두 작가의 작품에서 찾아내야 할 핵심은, 오늘날 인간과 피조세계에 드리워진 고통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것에서 미래와 해방 운운하는 포스트 담론에 미혹되어 간과해선 안 될, 이 시대와 문명의 본질이라 말했다.

사실 오늘날 현대미술이 창조 본질인 생명이나 진실 탐구의 노력과는 무관한, 철저히 인본주의적 토대에서 자본주의와 결합해 상실감과 혐오감마저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과도한 감각적 쾌로 휘발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며, 그 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독교 미술가로서 본인도 하나님의 영성이 아닌 인본주의적 사머니즘에 경도되어온 현대미술의 근원적 문제점을 깨닫고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되었다. 그리고 죄로 물든 현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예술은 그러한 세계 내의 삶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더 높은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활동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깊은 공감을 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서 무엇보다 창의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칫 신의 섭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융합이 낡을 인류의 비극과 인공지능에 밀려 도태위기에 처할 인류의 앞날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한 미술분야의 진정한 창의적 융합에 대한 연구를 차후 심교수의 논문을 통해 접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